

전남도,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조성

아열대 과수·기능성 채소 육성

매년 200억 들여 20ha씩 조성

다음달 25일까지 신청...3월 확정

전남도가 아열대 과수, 기능성 채소 등 경쟁력 있는 고소득 시설원에 작물을 육성하기 위해 매년 200억원을 들여 '신소득 원예특화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최근 도내 시·군 업무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구체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조성사업은 기후변화에 대

응해 아열대 과수를 단지화하고, 산업화 수요가 높은 기능성 채소를 확대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협 등에 생산시설과 장비·유통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전남도는 생산시설 중심의 특화단지를 매년 20ha씩 조성하고, 품목별로 이미 집약화된 단지에 유통시설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면적은 농가당 1650㎡ 이상부터 3300㎡까지다. 다만 시·군 전체 희망 면적이 단일 품목으로 3ha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단가도 확대했다. 최근 철근 등 원자재 가격 상승과 아열대 작물 재배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해 ㎡당 10만원으로 책정했다. 바나나와 같이 측고가 높은 시설에는 ㎡당 15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사업비 보조비율을 일반 농업인은 60%, 청년농업인은 70%를 적용해 청년농업인의 유입을 확대하고, 농업·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사업을 바라보면 오는 2월 25일까지 사업장 소재 지·군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서면·발표평가 등을 거쳐 3월 중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전남지역은 오는 2050년 한반도에서 가장 빨리 아열대기후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해 말 기준 애플망고, 파파야, 바나나 등 아열대 과수 재배 면적이 58ha로 전국에서 가장 넓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영록 지사, 서남권 수산종합지원단지 방문

김영록(앞줄 오른쪽에서 두번째) 전남지사가 18일 목포수협 수산물 유통 지원사업 현장인 서남권수산종합지원단지를 방문, 수산물 위생안전체계 및 유통물류센터 구축사업에 대한 현황을 들은 뒤 물류센터 현황을 둘러보고 있다.

전남도,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 속도낸다

지방도에 2351억 투입

61곳 249km 구간 정비

전남도가 지난해 국가계획에 역대 최대인 12조 8000억원의 SOC 사업비를 반영한 가운데 지방도에 2351억원을 투입해 61곳 249km 구간을 정비할 계획이다. 전년보다 무려 146% 증액한 규모로 국도, 고속도로, 철도 등에 맞춰 지방도의 연계성을 높이겠다는 전남도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그동안 자체예산 부족으로 계획 및 추진 중인 지방도, 국가지원지방도 등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했

었다.

국비가 보조되는 도계-장성 등 국가지원지방도 6곳은 500억원을 들여 42km를 공사 중이다. 설계 중인 나주 금천-화순 도암, 장성 동화-서삼 간 2곳 18km와 광주 하남-장성 삼계 간 광역도로 7.4km는 조속히 공사가 시작되도록 지속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다.

또 전액 도비로 추진하는 지방도 정비사업에는 총 52곳에 1800억원을 투입한다. 이 중 영산강 강변도로 등 38곳은 공사 중으로, 정비가 시급한 군남-영광 등 5곳은 지난해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신규로 착수하며, 거제-안지 등 9곳은 올해 준공한

다. 지방도 정비사업의 가시적 성과 체감이 기대된다.

신규로 설계를 추진할 점도대교 등 3곳이 포함된 설계지구는 14곳이며 순차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민의 기대와 수요를 반영해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을 반영했다"며 "수립한 예산은 추진 중인 도로사업을 조기에 개통하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건설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상반기에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100만원 저축하면 100만원 더 드려요"

광주 '청년13 통장' 참여자

다음달 8일까지 500명 모집

광주시는 "100만원까지 저축액을 두 배로 불리는 '청년13(일+살) 통장' 7기 참여자 500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월 10만원씩 10개월간 저축하면서 금융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에게 광주시가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 이후 2110명이 참여해 2028명(96.1%)이 만기 저축으로 지원을 받았다. 참여 대상은 공고일 기준 광주에 사는 만 19~34세 근로 청년으로, 세전 월 소득이 68만3444~191만4440원에 해당해야 한다.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청년금융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www.13account.or.kr)에서 신청하면 공개 추첨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추첨 과정은 2월10일 유튜브('광주청년13 TV')를 통해 생중계된다.

최종 선정자는 약정체결 후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100만원을 적립해야 한다. 광주시는 10개월간 저축관리는 물론 금융멘토링교육, 자기계발 등 금융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저축 만기 시에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청년금융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빛고를 콜센터(120), 광주시 청년정책관(062-613-2722), 청년금융복지지원센터(062-227-7079), 카카오톡채널 '청년금융복지지원센터'로 문의해도 된다.

김영선 광주시 청년정책관은 "저임금, 잦은 이직 등으로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일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청년에게 청년13(일+살) 통장이 행복한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1인가구' 건강한 삶 지원 나선다

주거지원 등 22개 사업 추진

광주시가 20년 사이 3배나 늘어난 '1인가구'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2020년 말 광주 1인가구는 19만3948가구로 전체 가구의 32.4%를 차지, 전국 평균(31.7%)을 웃돌았다. 2000년 광주 1인가구는 6만2077가구(전체 가구의 14.7%)였다. 20년 만에 가구 수 기준 3.2배가 됐으며 비율은 17.7%포인트 높아졌다.

광주시는 2019년 10월 1인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에는 1인가구 실태를 조사해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등 1인가구 지원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인가구 지원 대상별 정책 수요를 반영해 경제활동 지원(5개 사업), 주거

지원 및 안전 확보(8개 사업), 사회적 관계망 강화(6개 사업), 건강증진 지원(2개 사업), 시민 인식 개선(1개 사업) 등 5개 분야에서 총 22개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53억원), '1인가구 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195억원), '여성 범죄예방 취약가구 지원'(8000만원), '1인가구 여성안전 지킴'(1200만원), 1인가구 고립 방지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동아리활동 지원, 행복발상 등이다.

특히 자치구 중 1인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동구와 협업을 선정된 여성가족부의 공모사업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은 동구민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후 확대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관광업계 경영안정 진흥기금 지원 강화

융자금 이자 0.5%P 감면

융자 한도 최대 30억 확대

전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관광업계의 경영안정을 위해 관광진흥기금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도내 관광업계의 조기 회복을 돕기 위해 융자금 상환을 1년 유예하고 대출금리는 0.5%P 감면한다. 융자한도는 최대 30억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상환유예 대상은 2022년 상황일이 도래하는 모든 융자업체다. 1년간 총 26억원의 융자금 상환을 유예한다. 올해는 기존에 상환유예를 받은 경우도 포함해 더 많은 업체가 혜택을 받도록 했다.

대출금리는 0.5%P 감면해 이자부담률을 기존

1%에서 0.5%로 낮춘다. 감면 대상은 기금을 지원 받은 관광업체와 올해 새롭게 선정되는 업체 모두가 해당한다. 감면 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다. 감면 금리(0.5%)는 금융당국과 협의절차 등을 거쳐 2분기부터 적용한다. 1분기에 이미 납부한 이자는 정산해 환급할 계획이다. 총 2억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해 업체별로 평균 200만원(연간)의 혜택을 받게 된다.

신규 융자지원액은 총 100억원이다. 상반기에 70억원을 집중 배정한다. 융자한도는 관광숙박업 등의 신속, 개보수를 지원하는 시설자금은 15억원에서 최대 30억원으로, 운영자금은 3억원에서 최대 5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신규 융자지원은 전남도 누리집(jeonnam.go.kr)에 공고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동백꽃아름다운 거문도

거문도 백도 당일

89,000원

☺ 여/행/문/의

|메이투어 062)385-0515

|아이티여행사 062)382-8866

•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